

ChungNam Report+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

김양중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kyj0509@cni.re.kr

주요 내용

전략 1 : 투자선도기업 및 잠정 후보지 선정

-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개발여건이 우수한 성장거점지역에 주거·상업·산업·연구 등 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충청남도는 기업혁신파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충남형 기업혁신파크 구상,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기업 발굴 등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충남 산업육성계획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투자선도기업을 발굴해야 함
- 충청남도의 최적지를 기업에 제안하고 투자기업 및 사군과 협의해 경쟁력 있는 부지를 선정해야 함

전략 2 : 충남형 기업혁신파크 컨셉트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 사전 연구를 통해 투자기업과 충남형 기업혁신파크 컨셉트를 발굴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개발 방향 설정 및 용지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업혁신파크의 메뉴판 사업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함

전략 3 : 지역산업단지 및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발전전략 수립

-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기업이 지역현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육성정책을 공유하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
- 산업단지는 물량 배정, 업종 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 혁신파크는 사군에서 기업 유치 및 지역발전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01

기업혁신파크 추진배경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제조업·생산직 중심의 지역산업은 서비스와 문화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수도권에 경쟁력을 잃고 있고 문화, 레저 공간 등도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청년들의 지역 이탈현상이 가속화
 - 이에 교통 등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기업과 지역인재가 원하는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할 필요성 증대
-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기업 입지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혁신파크' 제도를 도입함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올해 6월까지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기업도시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
 - 일자리 창출주체인 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하는 기업 주도의 거점 조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담보
- 충청남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획기적인 기업 유치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
 - 2016년 이후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연평균 종사자수 증감율은 -1.1%를 기록하고 있고, 전자부품 제조업의 연평균 사업체수 증감율은 -4.2%에 달함

02

기업혁신파크란?

가.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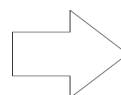
- 기업혁신파크는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기업 주도로 개발여건이 좋은 성장거점 인근에 주거·상업·산업·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은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업은 개발 및 투자를 추진하는 정책임
 - 기업 입주공간과 종사자를 위한 우수한 정주공간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기능·업종 유치가능
 - 기업혁신파크는 지자체와 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시행자의 직접 사용을 전제로 개발이 추진되고, 시행자, 입주기업 대상 법인세·지방세 감면, 기업입주용지 분양가 인하, 기업지원시설 건립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

나. 기존 기업도시와의 차이점

- 기업혁신파크는 낙후지역·대규모 개발 중심인 기존 기업도시 제도와 달리 초광역권이나 강소도시권의 성장거점 주변에 소규모 고밀개발을 허용하고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임
 - 기업도시법 개정안('22.12월 발의)은 최소면적기준 완화, 용적률 등 특례 강화,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

| 기업 도시와의 차이점 |

	기존 기업도시	기업혁신파크
개발대상	지방 낙후지역 중심	초광역·강소권 성장거점 인근
개발방향	대규모 + 중·저밀 개발 중심	소규모 + 고밀개발 허용



-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를 획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주거·교육·문화 등 복합기능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현재 기업도시법에서는 기업도시의 개발면적은 100만㎡ 이상, 산업단지 등이 인접할 경우 5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은 기업혁신파크의 기본 면적은 50만㎡ 이상으로 하되, 산업단지 등이 인접하면 30만㎡ 이상, 지방도심 내일 경우 10만㎡ 이상이면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며, 기회발전특구나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른 특구와의 중복지정도 가능

03

충남의 대응방안

- 사군별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군 간 과다경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함

■ 투자선도기업 및 잠정 후보지 선정

■ 투자선도기업 발굴(투자기업체 유치)

- 충남 산업육성계획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견고히 할 수 있는 투자선도기업 발굴

■ 잠정 후보지 발굴·검토

- 사군의 산업특성과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해 최적지를 기업에 제안하고 투자기업과 협의해 경쟁력 있는 부지 선정

ex) 사례1: 도요타 우븐시티

- 도요타는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자율주행차와 로봇공학, AI가 결합된 스마트시티인 우븐(직물처럼 촘촘하게 짠 도시라는 뜻)시티 건설 추진(도요타 후지공장 부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규모는 70만 8000㎡ 규모로 건설될 예정)

ex) 사례2: 스웨덴 시스타

- 스톡홀름시의 연구도시로 1976년 스웨덴 최대 기업인 에릭슨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과학 도시로 발전
- 시스타는 스톡홀름시의 연구도시로 1976년 스웨덴 최대 기업인 에릭슨 연구소가 이전하며 발전한 과학도시(면적 20만㎡)로 IBM, 필립스, 오라클, 인텔,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300개의 ICT기업, 700개의 기업이 입주

| 해외 우수사례 |



일본 도요타 우븐시티

스웨덴 시스타

- 충청남도는 현대자동차삼성디스플레이가 입지한 아산시, 현대오일뱅크·롯데케미칼·한화토탈·LG화학이 입지한 서산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이 입지한 당진시 등을 대상으로 사군 특화 기업혁신파크 모델을 구상할 필요

■ 충남형 기업혁신파크 콘셉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 충남에 적합한 기업혁신파크 개발방향 설정
 - 사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형 기업혁신파크 콘셉트를 설정하고 투자기업 발굴
 - 타 시도와 차별화된 개발방향 설정 및 산업시설용지,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관광용지 등 배치계획을 수립
- 자체 인센티브 마련
 - 기업혁신파크의 메뉴판 사업 이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별도의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
 - 투자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기업의 요구 및 애로사항 적극 해결

■ 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육성정책과 연계 발전전략 수립

- 지역산업육성정책 공유
 -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기업이 지역의 현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과 산업육성정책을 공유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 산업단지정책의 새로운 출구전략
 - 산업단지는 물량배정, 업종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군 입장에서는 기업혁신파크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04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대전, 울산, 강원 등이 기업혁신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 중에 있기 때문에, 충남 역시 공격적 대응이 필요하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 사군 간 협력이 필수적임
 - 충청남도는 국가 공모를 위한 자문단 및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충남의 약점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충남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군 간 경쟁을 줄이고 사군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추진해야 함
- 충청남도에게 기업혁신파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첫째,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인구감소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둘째,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수도권과의 격차가 완화되고 부의 역외유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셋째,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기업도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기업혁신파크가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이 촉진되고,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3.02, 지자체 대상 기업혁신파크 설명회 자료.
 송우경, 2022.08, 새정부의 기업혁신파크와 지자체 대응, 산업연구원.
 황연실, 2018.10, 지역경제성장엔진,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 용인시민신문.